

2002년 11월 18일

---

## 대통령선거 핵심공약 발표 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에 우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정책위 관계 여러분, 전문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당의 핵심은 바로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정책정치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대체로 정책을 가벼이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정책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정책으로 판단하는 시대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입니다. 그러나 또한 평당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과 대통령을 묶어주는 고리는 함께 동거동락했던 많은 인연이 함께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묶어진 관계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또 지속적이고 또한 몇몇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정책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숙지하고 하나하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선거자금 공개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방금 소개됐듯이 우리는 이번에 돈이 안드는 정치를 위해서 돈이 안드는 선거를 치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잠 쉬운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중심에 놓고 그것을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

달하는 그런 선거방식을 중심에 놓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누구의 돈으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위한 정치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돈으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정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의 돈으로 정치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자금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정치할 때라야 비로소 투명한 정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공개협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엄청난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쓰는지 진짜 의심스러운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압력이 아직 충분치 못해서인지 정치자금의 공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야 말로 뻘한 경로로 조달해서 그것도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하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한 생각도 좀 들고 불공평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마음먹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때라야 우리 정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또 불공평하다 싶은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꼭 선거자금의 공개를 시행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의 정책은 여러 면에서 한국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날 서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특권과 차별을 시정하고 자율과 분권의 정치를 함으로써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동북아의 시대를 열어나감으로써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있는 경제블록의 노른자위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자들을 개혁하고 新산업정책으로 산업강국을 실현하고 정보와 과학기술의 대국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해온 당입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더욱더 심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그리고 외국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층을 돌보는 따뜻한 나라

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도록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新한반도시대를 열고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침으로써 자랑스러운 나라 그리고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강한 군대와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정책본부장께서 또 그리고 각별 위원장들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설계가 있더라도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책을 다듬어서 발표합니다만 이 정책은 여기에서 그냥 멈추어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또 보완되고 또 수정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책을 다듬기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거듭거듭 감사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는 우리의 이 정책을 반드시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아울러서 약속드립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